Entertainment p/19

이특에게 대체 무슨 일이…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8일 수요일 제288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이상화도 숀리허설 '퍼펙트'

삼성전자 너마저! '코리아 쇼크'

4분기 영업익 예상 크게 밑도는 8조3000억 추락 '충격'
스마트폰 관련 IT부품 국내 상장사 하향 도미노 우려

2014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 만에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 빠졌다. 외국계 증권사가 올 들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8조원대 후반으로 후려치며 시장에 충격을 안긴 것이 무색하게,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은 8조원대 초반으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 등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하향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가뜩이나 원고·엔저 현상이 심해지며 일본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IT는 물론, 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주의 실적이 종전처럼 질주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졌다.

7일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의 스타트를 끊은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5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8조3000억원으로 6.1% 줄어들었다.

8조원대 영업이익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내 증권사들의 종전 예상치는 10조원 안팎의 수준이었다. 올 들어 외국계 증권사인 BNP파리바가 8조7800억원으로 전망치를 대폭 후려치고 나서야 국내 증권사들의 예상치도 9조원대로 겨우 내려왔다.

줄줄이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인 주요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176개 상장사 중에서 102개사(58.0%)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일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평균 6.7% 하락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IT 종목 중 삼성테크윈(-24.8%), 아바텍(-24.7%), 삼성SDI(-24.5%), LG디스플레이(-23.9%), 삼성전기(-17.9%), LG전자(-17.0%) 등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미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등에 대한 목표 주가도 속속 낮춰 잡기 시작했다. IT와 더불어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2661억원으로 한 달 전 2조2998억원에서 1.5% 줄어들었으며 기아차는 2.0% 감소했다.

◆상반기 4조5000억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건설 '초비상'

이에 시장의 눈은 내수로 돌아갔으나 대내 상황이라고 더 낫지 않다. 건설업종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4조5000억원이 넘는 회사채 만기 폭탄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4조원을 웃도는 회사채를 상환한 건설사들은 한숨 돌리기 무섭게 또다시 더 큰 상환 압박을 마주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35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SK건설은 3월까지 18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하며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상반기 안으로 각각 5000억원, 2500억원을 막아야 한다. 동부건설 역시 상반기에 11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자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가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내수 중심으로 민간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경기가 바닥에서 탈출했으므로 올해 민간 영역이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출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엔 등 환율 여파로 채산성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100년 유랑' 조선 불화 고국 품으로…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미 허미티지박물관 기증 조선불화 기자설명회'에서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홍보팀장이 한국 게이머들의 힘으로 반환된 '석가 삼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손진영기자 son@

'동네 사장님의 발' 다마스·라보 다시 달린다

한국GM 하반기부터 생산 재개 결정

다마스

라보

한국GM은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연말 생산을 중단한 경상용차 다마스(Damas)와 라보(Labo)에 적용되는 일부 기준을 유예받아 차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중 본격 생산을 재개한다.

경상용 차량의 주요 수요층인 소상공 업계의 생산 재개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업계 협의를 진행해온 한국GM은 주행 최고속도(99km/h) 제한장치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On-Board Diagnostic),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새롭게 개발 적용해 안전과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 설계 변경과 생산설비 재배치, 관련 부품협력업체 계약 등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생산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용차 중 경차 혜택을 받는 유일한 경상용 승합 및 트럭형 차량인 다마스와 라보는 지난 1991년 첫 출시 이후 저렴한 차량 가격과 유지비로 23년간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은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관계 부처의 관심과 고객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련 연구 개발을 마치고 신속히 생산을 재개해 경상용차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향후 더 높은 제품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경제형 차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스파크 LPG 밴(Spark LPG Van) 모델을 13일부터 판매한다.

국내 유일의 경형 LPG 밴인 스파크 LPG 밴 모델은 경차 전용으로 개발된 LPGi 엔진을 탑재, 자체 충전 압력 또는 연료펌프를 통해 공급된 액체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 후 인젝터로 분사해 안전성과 성능뿐만 아니라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저감까지 실현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이석채 비자금' 고위 공무원에 전달 포착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미래부·산자부·안행부 등에 로비자금 활용 조사중…부처 물갈이 도화선 주목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정부 사정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전 KT 회장의 사임 발표 훨씬 이전부터 비자금 등 비리 문제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전 회장의 경우, MB정부 시절 연임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KT 회장직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현직 정부 부처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직 공무원 A씨와 안행부 공무원 B씨, 산자부 공무원 C씨 등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정부기관의 전직 차관급 인사인 D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공직사회 '대규모 물갈이' 소문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전 부처 물갈이'로 번지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이 관계로 흘러들어 간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이 도화선이 돼 일부 부처에 대한 물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이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명품 팔아먹기 좋은 나라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레저부 기자>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최근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지난해 말 프라다는 가방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올렸고, 샤넬은 잡화 가격을 10% 안팎으로 높였다.

환율이 떨어지고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고가의 수입 명품은 오히려 값을 올려 받으며 콧대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지나친 '명품 사랑' 탓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명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쌀수록 더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명품 가방류 50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고전하는 명품들이 '고가' 전략으로 줄어든 매출액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가격을 올릴 특별한 요인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렸다. 하루빨리 명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없으면 '외면'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강감찬함서 해적 퇴치 훈련 청해부대 제15진 강감찬함 장병 300여 명은 16일 소말리아 아덴만 등에서 해적 퇴치 임무에 나선다.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이 파병에 대비해 7일 경남 거제시 지세포 인근 해상에서 기동 중인 강감찬함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은 별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금강산 관광과 같이 제의할 경우 별개로 분리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 사안으로 대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우리 측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의를 하자 적십자 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함께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 적십자 실무접촉 답 없어

한편 전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10일 통일각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할머니'도 화났다 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교학사 교과서 폐기 및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등이 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산고도 '교학사' 철회…"외압에 의한 결정 아니다"

전주 상산고가 우편향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철회 결정은 아니다. 다만 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채택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고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윤다혜기자 ydh@

미 기계화대대 9개월간 경기북부 배치

이라크에서 철수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기계화대대가 경기북부 지역에 9개월 동안 배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M1A2 전차와 M2A3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군 1개 기계화대대가 9일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임시로 배치된다"며 "순환 배치 중인 이 부대는 9개월 뒤에는 한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규모는 800여 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군의 계획된 부대 순환 배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제23화학대대는 주한미군 2사단 1여단 소속으로 핵 생화학 정찰 및 장비 제독, 한·미 사후대응관리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설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들이 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남인천농협에서 육류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사진도 셀카로 찰칵! 7일 서울 성북구 장위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현 등 4명 구속영장

'동양사태' 사기·배임·횡령 혐의…구속 여부 내일 결정될듯

검찰이 7일 '동양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열릴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짝퉁 10개 중 4개 샤넬·루이비통

명동·남대문시장 등 단속

서울시가 압수한 위조 상품들. /서울시 제공

동대문·명동 등 서울 번화가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 10개 중 4개는 샤넬과 루이비통 브랜드를 본뜬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는 지난해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등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총 382건, 7만274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165명을 사법 당국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도용 상표는 샤넬과 루이비통이 각각 1만4944개와 1만4906개로 가장 많았다.

구찌(4591개), 폴로(4296개), 캘빈클라인(3389개), 나이키(2232개), 돌체앤가바나(2094개), 블랙야크(1953개), 아디다스(193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품목은 의류, 양말, 장신구, 모자, 지갑, 쇼핑백, 벨트, 가방 등의 순이었다.

/조현정기자 jhj@

집배원도 7월부터 토요휴무

집배원들도 7월 1일부터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지난 1일부터 원칙적으로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를 시행키로 했으나 대국민 홍보와 인력 재배치,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 준비를 위해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요일에 접수한 우편물, 농수산물 등 시급히 배달돼야 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바빠진 물류센터 설을 앞두고 7일 오전 경기도 오산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평소 물량보다 45% 이상 늘어난 하루 25만 개 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례용품 구매 강요땐 업무정지·과징금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장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해 신고해야 한다.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현정기자

우울증·자살 사회 비용 10조 넘었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선미·백종환·윤영덕·김재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직접 의료비(입원·외래 방문·약국 진료비 등)와 직접 비의료비(교통비 등), 우울증 관련 조기 사망 및 자살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액, 업무 수행 저하 및 병가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액 등을 바탕으로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했다.

분석 결과 2007년 7조3367억원이었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8조1526억원, 2009년 9조3334억원, 2010년 9조5247억원으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0조3826억원을 기록해 5년 새 사회경제적 비용은 41.5%나 증가했다.

비용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울증 관련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액이 전체 비용의 6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업무 수행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액이 28.3%, 직접 의료비가 3.3%, 병가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이 1%를 기록했다.

또 조사 기간 전체 비용의 70% 안팎이 남자에서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2011년 기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화가 장욱진 태어나다

1918년 1월 8일 예술과 술의 화가 장욱진이 충남 연기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인 교사의 부당함을 항의하다 경성 제2고보에서 퇴학당하고 양정고보를 거쳐 도쿄제국 미술학교에서 수학했고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서양화 2세대를 이루어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동화·전설·이웃 등 친근한 소재를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성으로 그려내 동양철학적인 사색이 담긴 화풍을 추구한 그는 도시를 떠나 덕소, 수안보, 신갈 등 자연 속의 시골로 들어가 그림과 술, 가족과 더불어 치열한 예술과 무욕의 삶을 살다 갔다.

게이머 힘으로! 조선 불화 '100년 만의 귀향'

'LoL' 서비스 라이엇게임즈, 美박물관에 반환비용 3억 지원

한국 게이머의 힘으로 100여 년 동안 외국을 떠돌던 조선 후기 불화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신한은행 등이 해외에 있는 유물을 환수해 온 사례는 있었지만 외국계 기업과 한국 게이머가 힘을 합쳐 환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인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는 7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석가 삼존도' 반환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석가 삼존도'는 가로·세로 각 3m가 넘는 18세기 조선 후기 대형 불화로 일제강점기 초반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가 194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주 노포크에 위치한 허미티지박물관 천장에 둥글게 말린 채 40여 년간 방치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불화는 미국 버지니아주 박물관협회로부터 '2011년 위험에 처한 문화재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미국 버지니아주 박물관협회가 제작해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확인한 라이엇게임즈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문화재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라이엇게임즈가 허미티지박물관 운영기금 등 반환 관련 비용 3억원 일체를 지원하면서 환수는 급물살을 탔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 운영서비스 총괄상무는 "한국 문화유산을 위한 이용자의 후원 하나하나를 모아 이와 같이 큰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사회 환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 상무가 7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석가 삼존도'의 반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국외소재문화재재단도 게임회사의 도움으로 자칫 외국에서 소실될 수도 있었던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알려진 아난 존자와 가섭 존자가 전면에 배치돼 있는 등 등장인물의 섬세한 표정 묘사 등은 조선 불화에서 보기 드문 수작에 속한다"며 "미술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불화를 외국계 게임기업과 한국 게이머의 도움으로 환수한 이번 사례는 문화재 반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엇게임즈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석가 삼존도의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 국내에 전시할 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국보·보물 등 문화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노래방서 업무추진비 펑펑

부당 집행 지방의원 44명 적발…선물구매에도 써

노래방·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남용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 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사 동료 의원 및 직원들과 나누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대입 실기시험 몸부터 풀고… 7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예체능대학 정시 가군 현대무용 실기고사에 앞서 수험생들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 전 1분 공회전 '준비운동'

자동차 겨울철 무병장수 10계명

시민단체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이 7일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자동차 무병장수 십계명'을 내놨다.

날씨가 추울 때 고장 나기 쉬운 자동차의 '계절병'을 막으려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 급가속과 과속을 삼가해야 한다.

사람처럼 '신경통'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5분 정도 시동을 걸어 운동시켜주면 좋다. 또 준비운동 차원에서 1분 정도 공회전을 한 뒤 처음 200m까지는 시속 20km 이내로 주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동차의 보온을 위해 옥외보다는 옥내주차장을 이용하고, 자동차 앞 방향을 벽 쪽으로 해야 시동 걸기가 훨씬 쉽다. 시속 60~80km의 경제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민준기자

'겨울 간식' 붕어빵·호떡 믿고 먹었는데…

유통기한 변조하거나 지난 원료 납품한 제조업체 적발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인 붕어빵과 호떡, 호두과자 등 일부 식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겨울철 다소비 식품 원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모두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가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북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모두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일자를 미표시한 곳이 4곳 적발됐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도 있었다.

/윤다혜기자

구정소식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

서울시 구로구가 7일 구로구민회관에서 문화 소외계층 500명을 초대해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선보였다.

서울문화재단이 펼치고 있는 '문화이용권-찾아가는 서비스 특별공연'의 일환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대상

서울시 영등포구가 '201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 촉진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으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전자태그(RFID) 4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문 난방영업 사업장 단속

서울시 금천구가 다음달 28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대명시장 일대, 가산디지털1·2로 구간, 시흥대로 구간 등이 대상 지역으로 적발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동특구 간판 335곳 교체

서울시 중구는 명동관광특구 간판개선 2차사업을 벌여 335개 업체의 간판을 교체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해 연간 약 80%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제설도구 무료 대여 서비스

서울시 강동구가 '우리 동네 눈치우기'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제설도구 무료 대여 시스템을 운영한다. 무료대여소 18개소와 간선도로변 주민 자율 제설도구함 10개소 등 28개소에 740개 제설도구를 비치할 방침이다.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얼굴이 '꽁꽁' 얼어붙었다. /AP 연합뉴스

북미 '살인 한파'…"영하 60도도 가능"

북미에는 눈폭풍이 몰아치고 남미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등 지구촌이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중부와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수은주가 뚝 떨어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크레인레이크 지역은 6일(현지시간) 최저기온이 영하 37.8도였다. 시카고 지역도 이날 기온이 영하 27.8도까지 떨어지면서 2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됐다.

앞서 미 국립기상청(NWS)은 "7일까지 미 중서부·동부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5분 이상 맨살이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정도"라고 경고했다.

◆남미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

남미 대륙은 100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로 허덕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는 6일 1906년 이래 가장 높은 50도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사병 증세로 치료를 받는 주민이 수백 명에 달했고 10여 명은 사망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럽은 '물폭탄'이 걱정이다. 스웨덴은 6일 강수량이 늘어 호수 수위가 최대 1m까지 높아졌다며 홍수 1급 주의보를 내렸다.

/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웨이보 약속 지키려 개와 함께 엉금엉금

최근 중국에서 중년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잔디밭을 기어다니는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항저우(杭州)사범대학 법학과의 판중신(范忠信) 교수.

그는 1년 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2013년 안에 민족자치구 외 다른 모든 성(省), 시(市)정부에서 공무원 재산 공개를 실시할 것이다. 내 예언이 틀리면 벌로 1㎞를 기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글은 추천 수가 1만 건이 넘으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새해가 다가오자 '기억력 좋은' 네티즌들이 이 글을 다시 꺼내며 판 교수를 조롱했다.

이에 판 교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일 공터에서 기어다니는 자신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기어다닌 후에 손바닥과 무릎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판 교수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판 교수는 처음 약속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봤다. 18대 이후 중앙정부는 반부패 문제를 매우 강조하며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내기'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재산 공개제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여성 경제대통령 시대' 열렸다

옐런 미 연준 의장 인준안 상원 통과…다음달 1일 공식임기 시작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을 '경제 대통령'으로 맞았고, 해군은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4성 제독을 수장으로 '바다 대통령' 시대를 준비한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67·**사진**)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6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

옐런은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다음달 1일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끈다. 연준 사상 첫 여성 의장인 옐런은 1979년 취임한 폴 볼커 전 의장 이후 처음으로 부의장이 의장으로 승진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직은 세계경제를 뒤흔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옐런은 버냉키와 함께 양적완화(QE) 조치로 대변되는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현행 금융·통화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월 85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액을 750억 달러로 줄이는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기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미 해군 첫 흑인 여성 4성제독 탄생

미 해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4성 제독이 나온다.

해군 기관지 네이비 타임스 등은 미셸 하워드(53) 중장이 조만간 단행될 해군 장교 인사에서 첫 여성 4성 제독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군 본부 작전·기획·전략 담당 참모차장인 하워드는 육군의 앤 던우디 전 군수사령관과 재닛 울펜바거 공군 군수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4성 장성이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전군을 통틀어 처음이다.

1982년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하워드는 31년간 해상과 육상 근무에서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특히 항공모함 근무를 자청하는 등 '전투적인' 모습으로 해군 내 여성 보직에 대한 오랜 편견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밀수 상아·조각품 6t 폐기 6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둥관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상아 폐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밀수업자로부터 압수한 6t가량의 상아와 상아 조각품 등을 폐기 처분했다. /AP 뉴시스

日 53% "아베 야스쿠니 참배 부정적"

일본인 2명 중 1명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가치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 '가치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3%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가치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61.9%는 '외교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가치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74%는 '전쟁 희생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며 신사 참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행에 대해 일본인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30대와 20대의 경우 '가치 있다'는 응답이 50.6%와 43.2%로 '가치 없다'는 응답(30대 41.4%, 20대 41.6%)보다 많아 젊은 세대의 '우경화'를 보여줬다. /조선미기자

"학교 다닐 동안, 집 걱정 없어요"

대한민국 캠퍼스에 행복을 더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그 행복한 이야기는 2014년에도 계속 됩니다

2014년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공급물량 :** 3천호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4. 1. 8) 현재 타 시 · 군 출신 대학생
  (2014년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 단,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백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55백만원, 기타지역 45백만원
- **신청기간 :** 2014. 1.14(화) ~ 1.16(목)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당첨자 발표 :** 2014. 2. 11(화) 14시 이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2순위), 200만원(3순위)
  - 임 대 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1순위, 2순위) 또는 연 3%(3순위)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단,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1600-1004(LH 콜센터), 1577-3399(전월세지원센터)**

market index <7일>

코스피 1959.44 (+6.16)

코스닥 504.86 (+4.24)

금리(국고채 3년) 2.8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68.50 (+2.50)

대기업-중소기업 신입 연봉차 1127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들의 연봉 차가 10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4년제대 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70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공기업은 3005만원, 외국계 기업은 2980만원, 중소기업은 258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 격차가 무려 1127만원에 달한 셈이다.

대기업 중에는 조선중공업(4300만원)과 금융(4189만원) 업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유통(3308만원), 식음료외식(3416만원)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팔도특산물 최대 20% 할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이 7일 중앙우체국에서 '2014년 우체국쇼핑 할인대잔치' 홍보행사를 열고 있다. 우체국쇼핑은 8~22일 팔도특산물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연간 4000만원 금융소득자 8% 증가해 5만6000명 집계

●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가 5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따르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6만5730명이며 금융소득은 10조6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신고 인원은 8%, 금액은 4.3% 늘어난 수치다. /박정원기자

카드영수증 정보 유출 차단

●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영수증(매출 전표)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 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 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김현정기자

매매가 오른 집 85% 중소형

●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매매가가 상승한 가구의 85%가 중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총 347만7162가구 가운데 29만7211가구가 1년 전보다 매매가가 상승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25만2699가구로 85%를 차지했다. /박선옥기자

'2.5%' 손 잘못 댔다간 경기 '풀썩'

채권전문가 99%, 1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美양적완화 축소로 리스크 여전…관망 필요 분석"

오는 9일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 대세 속에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2.50%로, 지난달까지 7개월째 동결 기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4년도 1월 채권시장 지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99% 이상이 1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대내외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지난해 12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발표됐다"면서도 "국내 경기 회복이 기준금리를 조절할 만큼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당국의 올해 통화정책 방향이 통화정책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장기적으로 테이퍼링이 가져올 이슈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이 정책 변화를 모색할 만한 시장 변동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팀장은 "신흥국들도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더 지켜보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섣부른 통화정책 조정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최대 1년 반까지 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해 금융시장이 한때 출렁거렸다.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권구훈 전무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절상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의외의 비둘기파(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성향)적인 방향 전환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이날 이례적으로 10원 넘게 치솟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2원 오른 1065.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권 전무는 "원화 절상, 시중금리 상승, 증시 약세 등으로 한국 금융권의 상태가 너무 빨리 긴축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 회복 추진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CES 달군 삼성전자 콘퍼런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2014'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난다 라마찬드란 상무가 '갤럭시 노트 프로' '갤럭시 탭 프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반도체칩 없는 카드 내달부터 인출 중지

다음달부터 반도체칩(IC칩)이 내장되지 않은 MS(Magnetic Stripe)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달 중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교체하지 않으면 현금 인출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즉시 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 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로, MS현금카드·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이다. 이들 MS카드를 통한 구매 거래·현금서비스·카드론 거래 등도 2015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교체 대상 카드는 67만 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여 장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04년 이후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금카드 중에서 마그네틱 띠만 부착돼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반도체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김현정기자

경제뇌관 '가계빚 1000조' 공포 현실로

최근 두달새 9조 증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취급기관 대출만 두 달 새 9조원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원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재작년 12월 65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월 654조4000억원까지 줄고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5월부터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이후 두 달 사이 대출 잔액만 9조원이 증가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과 함께 보험사, 연기금, 대부 사업자, 공적 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및 판매신용까지 포괄해 분기별로 산출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정부 정책에 의한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가계신용이 당연히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414조2000억원)이 한 달 전보다 2조8000억원 늘고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266조9000억원)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478조2000억원)은 3조원 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2조9000억원)은 2조원 증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구글 안드로이드카' 현대차도 탑승한다

아우디·GM·혼다 등 4사 '달리는 스마트폰' 개발 손잡아

구글이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4사와 손잡고 일명 '안드로이드카'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 아우디, GM, 혼다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해 음성과 터치 조작으로 차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이들 업체와 IT기술 개발을 추진할 단체를 만들어 안드로이드카 제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7일 구글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뒤 음성으로 목적지 설정, e메일, 주식 정보, 날씨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충돌 위험 감지, 안전 주차 등 운전과 관련된 첨단 기능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시동을 켜면 자동차 컴퓨터가 "목적지 설정"이라고 물으면 운전자가 "코엑스"라고 답하고 곧바로 "30분 소요 예정. 접촉 사고 처리로 5분 정도 추가 소요 가능성" 등을 일러준다.

또 "김 과장에게 e메일을 보내줘"라고 말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전송을 해줄 수 있다.

원격 시동, 실내온도 조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와 같은 일도 음성·터치와 함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요리" "빌보드 차트 1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구글의 검색 횟수 등을 반영한 결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같은 날 현대차는 미국 가전전시회(CES)에서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블루링크 텔레매틱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2015년형 제네시스에 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티브로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케이블 방송사 티브로드는 7일 수원방송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지역별로 디지털 HD 방송가입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서비스 기능 추가 ▲주문형비디오(VOD) 관련 기능 개선 ▲사용자 계정 정보 변경 기능 ▲고객의 소리(VOC)를 반영한 기능 개선 등 4가지 방향으로 개편됐다. /티브로드 제공

스마트폰 악성앱, 홈피로도 침투 조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유포되던 모바일 악성앱이 최근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됐다며 모바일 기기에서 홈페이지 접속 시 앱 다운로드 안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모바일 악성 앱은 이용자들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방문하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포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웹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하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열리지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 '스마트폰 필수 보안업데이트'라는 문구로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OK 버튼 클릭 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연결되지 않고 자동으로 악성 앱이 다운로드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승기·김연아 1년 더 'KB금융의 얼굴' 맡는다

KB금융그룹이 최근 이승기·김연아(**사진 왼쪽부터**)와 모델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이승기와 김연아는 2014년에도 KB금융그룹의 대표 모델로 활약하게 된다.

이로써 이승기군은 2009년 KB금융그룹 광고모델을 시작으로 6년째, 김연아 선수는 고등학생이었던 2006년부터 시작해 9년째 KB금융의 한 가족으로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동일 광고모델을 장기간 운용하는 전략에 대해 금융의 기본 원칙인 안정과 신뢰의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는 성공 사례로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대학신문이 조사, 발표한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브랜드에 KB금융그룹이 1위에 올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국공립 유치원 품은 아파트 뜬다

마포 래미안 웰스트림 등 단지내 유치 활발
입주민 '꿈의 보육시설' 입학 쉬워 집값 호재

단지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자극하겠다는 계산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는 많은 데 반해 이들 시설의 입학 기준은 까다롭다는 데서 착안한 선택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기부체납해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수요자라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래미안 휴레스트'의 경우 당초 키즈카페로 사용하려던 1층짜리 건물을 정원의 50%를 입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했다.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 통원을 원하는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맞은편 아파트보다 2000만~3000만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공급된 '래미안 웰스트림'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단지와 인접한 골프연습장 부지를 140억원에 매입, 연면적 1580㎡ 규모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석어린이집'을 마포구에 기부체납키로 했다.

삼성물산은 또 서울 신길동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분양 중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안에도 구립 어린이집과 구립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 공급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과 130명까지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국공립은 아니지만 최초 아동복지학부로 유명한 숙명여대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속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손쉽게 통원시킬 수 있고 치열한 입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하락 우려도 적어 실거주를 원하는 학부모라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아이도 어르신도 "올레가 딱이에요" KT가 청소년과 고연령층 고객을 위한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 유용한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올레 시니어앱모음'과 '올레키즈앱모음' 위젯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KT 제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허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계획 또는 기본 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규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가 허용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까지 완화된다. 용적률도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

왕십리 스트리트형 상가 분양

뉴타운 2구역 알짜 상권 7000가구 고정수요 예상

서울 중심지 왕십리뉴타운이 사업 속도를 내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2011년 가장 먼저 분양돼 시범단지에 해당하는 왕십리뉴타운2구역에서 단지 내 상가를 공급한다. 약 280m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다양한 업종 구성은 물론, 동선을 따라 배치된 상가들이 한눈에 들어와 상권 형성에 유리하다.

특히 왕십리뉴타운2구역 상가는 총 5000여 가구 규모에 이르는 왕십리뉴타운 배후 수요를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포함하면 고정 수요만 7000여 가구에 이른다.

교통도 편리하다.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2호선 상왕십리역의 트리플 역세권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마지막 황금 노선인 분당선과도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며 입주 시기는 2014년 2월이다. 분양 문의: 02)3395-0700

/박선옥기자

이만한 지식산업센터 드물지!

가양 '강서한강 자이타워'

GS건설이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강서한강 자이타워'를 공급한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 상반기부터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임대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서한강 자이타워는 최첨단 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와 인접한 데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분양가는 주변보다 저렴한 3.3㎡당 6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인근 영등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서 분양된 지식산업센터들은 700만~900만원대 수준이다. 또 보통 지식산업센터 전용률이 51~52%인 데 반해, 강서한강 자이타워는 58%(B동 기준)로 높다.

최초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75%까지 면제되고, 지방세(재산세 및 토지세)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금액의 약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가양동 현장에 분양홍보관이 운영 중이며,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다. 문의: 02)3665-0500 /박선옥기자

읽을거리·볼거리 풍성해지는 전자책

e-북 출간 2년새 6.5배↑… 종이책과 동시출판도 늘어

국내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eBook)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출간이 증가하면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출간된 전자책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전자책 출간 종수가 6.5배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전자책 발간 현황을 본격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의 경우 전자책은 총 8412종이 출간됐다. 이후 2012년 1만7094종으로 전년보다 203.2%가 늘었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320.1%가 증가한 5만4811종이 출간되는 등 전자책 출간 종수가 전년도 대비 매년 2~3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행본(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동시에 출간되는 비중도 덩달아 늘어 2011년 14.1%였던 것이 2013년에는 17.1%로 3%포인트 증가했다.

인터파크도서 eBook사업팀 김정원 MD는 "2012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비롯한 그레이 시리즈 6권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 출간하고 크게 히트한 사례를 남긴 뒤 전자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출판 관계자들도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인기 작가들의 신작을 중심으로 종이책과 전자책 출간 간격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 출간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시리즈도 종이책과 전자책이 함께 출간돼 순항 중이다. 이 시리즈의 종이책 출간은 지난해 7월 15일에, 전자책 출간은 같은 해 9월 13일에 있었다. 또 최근 방한해 화제가 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는 지난해 10월 23일 종이책과 전자책이 동시 출간돼 한 달 내내 양 분야 모두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전자책 콘텐츠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자책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도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전문가가 엄선한 전자책 한 권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주의 무료 책' 서비스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달콤한 '1000원의 유혹'

외식업계 핫음료·후렌치 후라이 등 프로모션

얼어붙은 소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새해를 맞은 각 업계가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푸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1000원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1000원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맛을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FC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 시즌 프로모션으로 지난 2일부터 핫음료 4종을 1000원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겨울철 KFC 대표 스낵 메뉴들과 함께 고객들이 많이 찾는 커피·카페라떼·카페모카·핫초코를 1000원이라는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버거킹도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다섯 번째 '와우 시리즈'를 선보였다. 은하수커피와 아메리카노로 구성된 커피 2종과 킹핫도그·칠리핫도그·바베큐치즈웨지·치즈칠리웨지로 구성된 스낵 메뉴 4종을 모두 1000원대에 판매한다.

맥도날드는 후렌치 후라이·탄산음료·아이스커피 및 프리미엄 로스트 커피를 1000원에 제공하는 '행복의 나라' 메뉴를 판매 중이다. 이외에도 불고기버거·맥치킨·맥너겟 등의 인기 메뉴 5가지는 2000원 이하로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 것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1000원을 더하면 기존보다 풍성한 메뉴를 제공하는 행사도 활발하다.

미스터피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맘마미아' 피자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샐러드바(2인)와 음료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직접 매장을 찾은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 및 포장 고객도 샐러드팩과 콜라를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새로 나온 메뉴를 맛보는 동시에 샐러드바를 실속 있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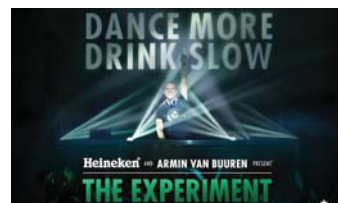
/정영일기자

보습제품으로 겨울 피부 지켜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6일 겨울철 건조한 피부 보습을 위한 제품으로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판퓨리(Panpuri)'의 보디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주원료로 해 자극이 없고 보습이 풍부한 오가닉 제품인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장미 향과 유칼립투스 성분이 함유된 '솔리튜드 보디클렌저'가 있다. 가격은 3만3000원대. /현대백화점 제공

주류업계 소식

일품진로 스페셜 에디션

●하이트진로가 새해를 '2014년 일품진로 새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일품(一品)캔들'이 더해진 이 상품은 10년 목통 숙성의 일품진로 2본과 세련된 전용잔 2개가 함께 포함돼 있다. 100% 순쌀 증류 원액을 목통에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실크빛의 골드 색상으로 마무리해 고급감을 더했다. 출고가 기준 2만3000원.

책임 음주 문화 캠페인

●하이네켄은 7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DJ '아민 반 뷰렌'과 손잡고 클럽 혹은 파티에서 춤과 술을 즐기는 젊은 성인 소비자를 위한 책임 음주 문화 캠페인 '댄스 모어, 드링크 슬로우'를 펼친다고 밝혔다. 전세계 2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젊은 소비자들이 클럽 혹은 파티 문화를 즐기면서 음주를 스스로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바텐더 대회 개막

●디아지오코리아는 7일 서울 강남 소재 조니워커하우스 서울에서 세계 최고의 바텐더 대회 '월드클래스 2014'의 개막을 알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 50개국의 1만여 명의 바텐더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텐더 대회다. 바텐더의 지식·기술·창의력·서비스 정신 등 바텐더로서 갖춰야 할 모든 항목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대회로 국내의 트렌디한 칵테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영일기자

3주 버티면 나쁜 습관과 작별

자기계발 '작심평생' 실천 비법

습관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생체리듬까지 교정돼 평생 정착 일기쓰듯 생활 체크해도 큰변화

"올해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뼈저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해 연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이미 기억 너머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다. '작심삼일'이란 사자성어를 탓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작심평생'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 **'21일 약속'을 지켜라**=지난 연말에 세운 계획을 지키기 힘든 '핑계'가 발생했더라도 일단 21일까지는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성공을 몸에 익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습관을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뇌에 시냅스(신경 간의 연결)가 형성돼 생체리듬까지 교정돼 평생 습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나만의 긍정 주문을 만들어라**=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때 슬기롭게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긍정주문 하나쯤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최고의 지략가다' '올해 판매왕은 내 차지다' 등 성공을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주문이 효과적이다.

◆ **성공을 정의하라**=성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때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가치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눈 뒤 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마저도 힘들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 **매일 평가하라**=평가와 피드백이 없으면 목표 달성률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기를 쓰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 바쁘다면 다이어리 등에 그날 목표와 달성 여부를 표시해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 **멘토와 함께하라**=계획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줄 멘토가 있다면 실천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상사나 동료 혹은 가족 중에서 멘토를 선정해도 된다. 필요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멘토가 돼 격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일주일 중 하루는 자신에게 보상하라**=최고의 동기부여는 '보상'이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매진한 스스로에게도 적합한 보상을 해준다면 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게임 마니아라면 일주일에 하루쯤은 퇴근 후 맘껏 게임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공모전의 계절

SK플래닛·LG·현대모비스 등 연초 대학생 대상 행사 봇물

신년을 맞아 대학생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공모전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에쓰오일(S-Oil)은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s-oilbonus.com)를 통해 마케팅 공모전을 연다. 응모 자격은 국내 거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1인 단독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IMC캠페인, 보너스카드 외 2개다. 대상·최우수상 수상자가 입사를 지원할 경우 우대한다.

SK플래닛도 19일까지 '대학생 체험 리포터 플리터 2기 모집 및 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 자격은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생이며 사진, 디자인 등 편집 능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부문은 영상과 디자인 부문, 기획과 홍보 부문이다. 수상한 6팀에게는 총 690만원의 상금과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준다. e메일(skplanetreporter@nate.com)로 지원할 수 있다.

LG 역시 '엘지럽젠 20기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2014년도 기준 대학 재학생이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기자와 취재기자로 총 10명을 모집한다. 활동 시 명함과 공식 활동 인증서를 발급하며 취재 진행비, 해외 취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19일까지 홈페이지(www.lovegen.co.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논문·논술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한수원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 및 신뢰 회복 방안 외 1개다. 접수는 홈페이지(www.khnpcontest.co.kr)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도 '제5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주최한다. 응모 대상은 2년제 이상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다. 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팀은 이노션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www.mobis-adcontest.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새내기 승무원의 미소 아시아나항공의 신입 캐빈승무원들이 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A380 모형 비행기 옆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말띠생 'YBM기초영어 무료수강' 기회

말띠생이라면 기초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YBM시사닷컴의 초급자 전용 사이트 'YBM기초영어'가 갑오년 말띠 해를 맞아 26일까지 말띠생을 대상으로 'YBM기초영어 무료 수강 체험단'을 모집한다.

'초보 코스'와 '왕초보 코스' 2가지 부문으로 최종 선정된 체험단은 6개월 동안 발음·동사·어법·회화 등 약 12만원 상당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체험단 신청은 YBM기초영어 홈페이지(www.ybmbasiceng.com)에서 193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말띠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⑥

청중을 반하게 만드는 화법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힘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라디오 사연 들려주듯 말하면 청중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W스피치 도움을 받아 스토리텔링을 연습해봤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경험담 또는 깨달음을 얻은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란 주제를 전할 때 "사람은 외모가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입니다"는 식의 강의처럼 말하면 듣는 이는 금방 지루해한다. 대신 자신의 일화를 들며 "소개팅에서 피부가 하얗고 연약하게 생긴 분을 만났는데 암벽 등반과 사이클이 취미라 놀랐다"는 식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일한 주제라도 이야기를 양념처럼 사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스피치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다룬 실험 동영상도 시청했다.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 '저는 맹인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란 팻말을 옆에 두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바쁜 시민들은 노숙자를 슬쩍 보고 지나칠 뿐이다. 이때 한 여성이 나타나 팻말을 뒤집어 어떤 문구를 쓰기 시작한다. 새로 작성한 팻말을 놓자 노숙자의 동전 그릇은 경쾌한 동전 소리로 가득해졌다. 일부 사람은 지폐를 손에 건네기도 했다. 팻말 문구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리의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새로 바뀐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멋진 세상을 볼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을 대비시켜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청중의 관심을 얻어야 할 때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화술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스토리텔링은 일반 기업의 상업 광고에서도 많이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영상에 담는 식이다. 소비자에게 '저 물건을 사면 나도 광고 속 주인공처럼 될 수 있겠지'란 감정이입으로 지갑을 열게 유도한다. 스토리텔링은 사회생활의 강력한 언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호감을 주는 말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unique@

황금돼지띠 초딩 뭘 멜까

출생률 급증했던 2007년생 입학 앞두고 책가방 시장 특수 기대감

2014년 새 학기를 앞두고 업체들이 책가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출생률이 급증한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어린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업체들은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예년보다 입학특수 규모 클 전망

'황금 돼지의 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 덕분에 당시 출산은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07년 총 출생아 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45만2000명)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입학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에버랜드의 빈폴키즈는 황금돼지띠 이슈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물량을 약 30% 정도 늘렸다. 빈폴키즈의 책가방은 지난 2004년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25%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완판'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두루 갖춘 실용적인 책가방을 선보였다. 클래식한 스타일에 무게를 600g대로 줄여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었으며, 가격대도 13만5000~15만5000원으로 다양화했다.

휠라는 '친환경'과 '3D 입체 디자인'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아용 '트랜스포머'와 'F1 포뮬라 73' 시리즈는 영화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과 경주용 포뮬러 자동차를 3D 디자인으로 입체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아용 '맘 앤 아이 라인'은 사랑스러운 프린트 패턴으로 화사한 느낌을 부각시켰다. 전 제품이 친환경 인증 'EQ(Eco-Quality) 마크'를 획득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으며, 가격대는 6만9000~13만5000원 선이다.

코오롱FnC의 헤드 역시 전년보다 생산 물량을 20% 늘리고, 안정성·편리함·스타일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가방 3종을 내놨다.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 U자 어깨끈·등판 쿠션 등을 적용했으며, 무독성 검사에서 KC 인증을 받았다. 안감에 항균 코팅을 해 알레르기 위험 요소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 사랑이 남다른 부모들 덕에 프리미엄 키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띠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만큼 책가방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스무디킹 '모닝 자몽티' 정오까지 41% 할인 7일 스무디킹이 서울 중구 스무디킹 명동스타점 앞에서 '모닝 자몽티'를 선보이고 있다. 스무디킹은 매일 점심 12시부터 자몽티를 41% 할인된 2900원에 판매하는 '굿모닝 자몽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무디킹 제공

한개 값으로 두개…살맛나네

유통업계 '덤' 마케팅 풍성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에 '덤' 마케팅 바람이 거세다.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 생활가전 업체까지 하나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1+1' 행사를 벌이고 있다.

보습 브랜드 더마겔은 '촉촉 피부 기원 1+1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7일까지 더마겔 홈페이지에서 보습크림 또는 수분로션을 구입하면 동일한 정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행사다. 피부 무자극 입증을 받은 더마겔 제품은 스테로이드·인공색소·파라벤 등 유해 물질을 일절 넣지 않아 남녀노소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생활가전 기업 리홈쿠첸은 리홈쿠첸숍에서 '홍삼중탕기'를 구입하면 내솥을 하나 더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홍삼중탕기 내솥은 자수정을 활용해 홍삼의 면역증강력 효과를 높여주는 등 인체에 이로운 게르마늄 원적외선을 방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내솥은 7일부터 선착순 100대 한정으로 제공된다.

/박지원기자

한국 와인시장 맛보러 온 英 와인 마스터

테스코 그룹의 로라 주엘 홈플러스 초청으로 방문

세계적인 유통회사 테스코 그룹의 와인 소싱(surcing)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 오브 와인(Master of Wine) 로라 주엘(Laura Jewell·50·사진)이 14일 홈플러스의 초청으로 한국 와인 시장의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첫 방한한다.

그녀는 연간 4억5000만 병에 달하는 테스코의 와인 글로벌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 영국 IMW(Institute of Master of Wine)에서 부여하는 전 세계에 312명밖에 되지 않는 마스터 오브 와인의 자격으로 2010년부터 테스코에 합류해 지금까지 그룹의 와인을 책임지고 있다.

테스코 그룹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 평가는 아주 높다.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테스코 그룹의 아시아 와인 콘퍼런스에서 테스코 영국 본사의 BWS(Beer, Wine & Spirits) 카테고리 디렉터 댄 자고(Dan Jago)는 "아시아 시장의 특수성과 고객 성향,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4개 국가의 와인 소싱을 진행하는 글로벌 와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홈플러스는 '테스코 파이니스트' 리스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영국 테스코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로운 와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영일기자

K2는 골프의류·블랙야크는 스키의류…

아웃도어업계 새사업 붐

매년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새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2코리아는 올 9월 골프 의류 브랜드 '와이드 앵글(W.Angle)'을 론칭하고 골프 의류 시장에 뛰어든다. K2의 기술력에 북유럽 스타일을 접목한 와이드 앵글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골프 의류와 소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스위스 스키 의류 브랜드인 '마운틴 포스'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며 스키족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영원무역은 지난해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등을 선보이는 스위스 업체 스캇 스포츠의 지분 20%를 인수한 바 있다.

/박지원기자

한병 2800만원!…작품이 된 위스키 에드링턴 코리아는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과 프랑스의 크리스털 공예 명가 라리끄가 공동으로 만든 한정판 위스키 '맥캘란 라리끄 5 스피리츄얼 홈 에디션'을 시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전 세계 400병 한정 생산됐으며 한국에는 단 10병만 판매된다. 62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담았으며 가격은 2800만원이다. /에드링턴 코리아 제공

미술관이야 호텔이야?

특급호텔들 숙박·미식 서비스 넘어 전시 이벤트로 감성 서비스

단순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특급 호텔들이 늘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호텔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소개한다.

◆신진 작가전 여는 앰배서더

먼저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역량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 전시를 후원하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예술이 우리 삶에 부여하는 특별한 가치를 호텔 방문객과 함께 공유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호텔은 지난달부터 손자일 작가의 '모노그램 프로젝트' 작품 전시전을 진행하고 있다.

호텔은 앞으로도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시리즈로 선보여 호텔의 공간을 문화 체험 장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예술품 가득한 임피리얼 팰리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호텔 내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호텔 곳곳에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어즈 아트페어' 등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로도 제작되며 많은 화제가 됐던 타이타닉호를 완벽하게 재현한 예술 작품도 로비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호텔 1층에 위치한 갤러리 포월스(Gallery 4Walls) 역시 고객들에게 또 다른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로그인을 할수록…(More Log-in Less Logging)'을 만날 수 있다.

◆노보텔 강남서도 개성있는 전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야외 라운지에서 '노보텔 강남, 예술을 만나다' 첫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의 문화 이벤트인 '아트앳노보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클레이 작가 기윤주의 작품과 한국 전통의 미와 나무 본연의 결을 잘 살린 작품으로 유명한 목공예 작가 동영애의 작품 등 총 5명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전시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호텔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제주항공 "올해 매출 목표 5300억"

제주항공이 지난 6일 2014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선도적 저비용항공사(LCC)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차별적 경쟁 우위 확보'를 2014년 전략 목표로 수립했다. 또 매출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5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원칙과 절차 준수를 통한 안전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매출 다변화를 위한 부가수익 창출 ▲고객 만족도 향상과 브랜드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핵심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항공사와의 간격을 줄이는 한편 후발 주자와의 격차도 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매출 다변화를 위해 2012년 국내 LCC 중 가장 먼저 시작한 소규모 화물 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로 발굴할 방침이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신규 취항과 기존 노선의 증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레일 '바다열차' 업그레이드 출발

코레일관광개발의 바다열차가 새 단장을 마치고 귀환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4일부터 강릉~삼척 구간을 운행하는 바다열차를 증량해 재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존 3량 114석에서 4량의 163석으로 열차를 증량했으며 특실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러포즈실도 마련했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3호 칸에는 가족과 마주보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24석의 가족석과 각종 이벤트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25석의 이벤트석이 운영되며 스낵바에서는 열차 내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까지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단체 여행에 알맞은 4호 칸에는 생생한 바다의 모습이 재현된 포토존이 자리했으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역시 바다 여행의 멋을 살리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격 올린 이코노미석 더 넓게 더 맛있게

신개념 '프리미엄 일반석' 외국항공사들 잇단 도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똑똑한 소비가 늘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개념 좌석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코노미 좌석보다 넓은 18.5인치의 좌석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앞 좌석과의 간격도 약 18㎝나 떨어져 있다. 또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프리미엄 기내식을 비행 내내 맛볼 수 있다. 게다가 김치와 라면·매실차도 제공된다.

에어프랑스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이코노미에 비해 40% 정도 더 공간이 넓고 좌석이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또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트래블 키트 제공 및 전용 체크인 카운터 이용, 우선 탑승, 수하물 추가 적재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캐세이패시픽의 장거리 노선 항공기에는 프리미엄 일반석이 탑재돼 있다. 일반석보다 좌석이 넓고 등받이를 최대 20㎝까지 눕힐 수 있으며 식사 테이블 외에 칵테일 테이블이 추가로 마련돼 있다. /황재용기자

아디다스 'NBA 스타' 제레미 린 후원 계약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NBA 황색 돌풍의 주역 제레미 린(26·휴스턴로키츠·사진)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아디다스는 이번 후원 계약 체결로 같은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포지션의 데릭 로즈(시카고 불스), 존 월(워싱턴 위저즈), 데미언 릴라드(포틀랜드 트레일브레이저스) 등 현존하는 NBA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후원하게 됐다.

아디다스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데릭 로즈, 드와이트 하워드, 캔디스 파커 등 스타 선수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NBA와 2006~2007 NBA 시즌을 시작으로 11년간 NBA, WNBA, D-리그에 공식 유니폼과 의류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박지원기자

한국인 해외여행객 20% "상품 강매 사기 경험"

한국인 해외여행객 5명 중 1명이 해외여행 중 여행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기 피해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2%가 해외여행 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공짜라고 유인해 상품을 사용하게 한 뒤 상품 가격을 청구하는 공짜 미끼 강매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의 26.4%가 공짜 미끼 강매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유럽 여행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우리에게 낯선 팁 문화도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이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 중 24.3%가 레스토랑·커피숍·관광지 등에서 일반적인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자 동의 없이 계산서에 팁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명품 짝퉁 사기를 당하는 여행자도 21.63%에 달했다. /황재용기자

뚱뚱한 사람이 더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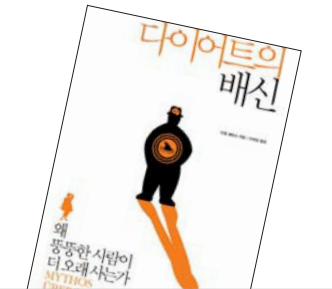
"체중증가는 스트레스 받은 인체의 생존전략"…'살빼기' 강박증에 반격

'다이어트'라는 단어로 도서를 검색하면 분명 수많은 다이어트 관련 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다이어트 관련 책들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왜 살이 찌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보다는 살을 빼는 빠른 방법만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이어트 관련 책을 쓴 저자들은 자신이 고안한 다이어트 방식이 언제나 새롭고 확실한 결과를 준다고 확신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다란 몸집의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 뚱뚱함이 미덕이라는 말이다.

다이어트의 배신

아힘 페터스/에코리브르

저자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체중 증가는 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이뤄진 결과이며 체중 감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속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다이어트도 하나의 속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저자는 체중 증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고 질병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뚱뚱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스트레스에 잘 견디며 모든 질병에도 잘 저항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 비록 그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 이 세상에 빠르고 쉬울뿐더러 위험하지 않고 건강한 체중 감량 비법이란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속설을 부정해야 할 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세상을 품은 인형들

①가나의 토킹 드럼 인형은 북으로 소통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고, ②필리핀의 바롱 타갈로그를 입고 있는 인형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기억한다. ③폴란드의 라이코닉 인형은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영광의 순간을 재현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을 인형으로 만들어왔다. 인형은 재미있는 풍습이나 신나는 축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 속 풍경 등 다양한 삶의 풍경이나 벅찬 순간, 아픈 역사와 함께 한다. –'갖고 싶은 세계의 인형'(유만찬·김진경/바다출판사) 중–

/박지원기자 pjw@

'추리의 여왕' 애거서 명작 다시읽기

화제의 책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애거서 크리스티/황금가지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들만을 엄선한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시리즈가 황금가지에서 출간됐다.

기네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100권이 넘는 장편 소설과 단편집과 희곡을 썼다. 이 소설들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40억 부가 넘게 팔려나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다. 이번에 선보인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는 가디언지에서 선정한 그녀의 베스트 10 목록과 전 세계적인 판매고, 애거서 크리스티 본인이 직접 뽑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목록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오리엔트 특급살인' 등 대표작 10권 시리즈로

총 77권인 전집 가운데 10권을 통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새로이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에디터스 초이스 시리즈엔 전 세계에서 1억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출간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미스터리 소설의 대표작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비롯해 작가가 창조한 캐릭터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명탐정 에르퀼 푸아로의 대표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 등이 포함됐다.

/정영일기자 prms@

새로 나온 책

요리

날것의 인생 매혹의 요리사

후안 모레노/반비

텍사스 교도소에서 200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준 요리사부터 알프스의 두메산골에 있는 700년 된 게스트하우스에서 요리하는 할머니까지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요리사들의 인생 이야기다. 반핵 시위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위자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있다.

건강

박타 건강법

샤오훙츠/올림

2010년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건강 비법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 10분씩 펴주고 두드려주는 박타 방법을 담고 있다. 1분을 배우면 100년이 건강해진다.

역사

학자의 고향

KBS 학자의 고향 제작팀/서교출판사

2011년 KBS 1TV에서 총 45회에 걸쳐 26명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소개한 '학자의 고향' 중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16명의 이야기를 엄선했다. 이들의 삶과 행보는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리더십의 빈곤을 겪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조건을 제시한다.

경제/경영

장사 잘되는 카페

전기홍/마일스톤

지난 10년간 저자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카페 장사의 현실이 담겨있다. '카페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저자의 카페 장사 노하우는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매출 부진에 빠진 카페 사장에게도, 지쳐가는 카페 경영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B2B영업 한비자에서 답을 찾다

김덕오/미래지식

20년 동안 B2B 영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업의 정도와 철학에 대해 고민하던 저자는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크게 깨달아 B2B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영업에 유리한 환경, 영업 철학, 영업적 스킬 등 한비자의 지혜와 저자의 노하우를 통해 B2B 영업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소설

후견인

김비은/대성 KOREA.COM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에이들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 스칼렛, 그리고 스칼렛의 후견인이 된 서더랜드. 하지만 서더랜드의 가족들이 하나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에이들 가문을 둘러싼 복수와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로맨틱 블랑제리

질 르가르디니에/달콤한 책

주로 스릴러 작품만 써오던 작가가 달달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사랑에 빠진 스물아홉 살 여성의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해 재미있게 읽힌다.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행복까지 담아냈다.

인문

로또 당첨번호 내 꿈속에 있다

새하얀/다차원북스

꿈속에 나타난 상징물을 로또 복권 당첨번호와 연관시켜 풀이한 책이다. 해몽의 가치가 있는 꿈들에 대해서는 그 연관성을 기록했으며 꿈과 부합되는 상징적 사물과 관련된 숫자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주간 e북 인기 순위

※집계 기간: 2013년 12월 30일~2014년 1월 5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장르
1	내일	기욤 뮈소	밝은세상	소설
2	정글만리 1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더클래식	소설
4	묵향 31	전동조	스카이미디어	장르소설
5	어린왕자 세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더클래식	소설
6	위대한 개츠비 세트	스콧 피츠제럴드	더클래식	소설
7	인생수업	법륜	휴(休)	종교
8	트렌드 코리아 2014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미래의창	경제경영
9	그리스인 조르바 세트	니코스 카잔차키스	더클래식	소설
10	총, 균, 쇠	베리타스알파 편집국	베리타스알파	청소년

/인터파크 제공

롤러·캔디춤 중독 되실걸요~

트랜디가 올해 국민 걸그룹을 향해 도약하겠다며 힘차게 뛰어올랐다. 왼쪽부터 나율·엘리·루루·단비·타미.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

제2의 크레용팝 노리는 트랜디

만화 속 귀여운 여성 캐릭터를 모아놓은 듯한 외모의 신예 걸그룹 트랜디(TREN-D)가 '제2의 크레용팝' 열풍을 노린다. 팀 이름의 알파벳 한 자씩을 따서 이름 지은 타미(T)·루루(R)·엘리(E)·나율(N)·단비(D) 다섯 멤버는 가요계 유행을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되겠다며 오색 빛깔을 반짝인다.

개성·솔직·친근 '3색 무기'

"'트렌디'가 아니고 '트랜디'예요. 국어표기법으로는 '렌'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 얘기가 너무 묻혀서 '랜'이라고 일부러 틀린 표기를 쓰기로 했어요."

숨길 법도 한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솔직 담백함이다. 데뷔곡 '캔디 보이'로 활동하면서 각자 고유의 캐릭터를 정한 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들어주세요. 자세히 보면 딱 어울리는 면이 보일 거예요"라는 귀여운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타미는 빨강머리 앤, 루루는 말괄량이 삐삐, 엘리는 세일러문 머큐리, 나율은 들장미 소녀 캔디, 단비는 엘프 요정을 연상시키는 맞춤형 스타일링으로 단번에 눈길을 끈다.

타미는 빼어난 보컬 실력과 판소리까지 소화하면서 래퍼를 맡고 있고, 루루는 광주 얼짱 출신으로 막내답지 않은 당찬 성격 때문에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엘리는 3년간 신보라·B1A4·김소정 등의 음반 가이드 녹음을 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다.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는 나율, 조용한 성격의 서브 보컬 단비도 신비한 느낌을 준다.

세련되고 섹시한 매력만을 내세우는 여성 그룹들의 이미지 전쟁에서 트랜디는 개성과 솔직·친근함으로 틈새를 공략한다.

"'키 작고 알록달록한 애들'이라고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우리 같은 외모의 걸그룹이 드물더라고요. 우린 멤버를 뽑을 때부터 누구 하나 키가 커도, 작아도 안 되고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죠. 대신 캐릭터는 절대 겹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팬카페 생기고 응원송도

'캔디보이'는 유로 복고풍 댄스 디스코 음악으로 구피의 박성호,

만화캐릭터 콘셉트 5인조 옆집 여동생 이미지 앞세워 복고풍 '캔디보이' 인기예감

원투의 오창훈 등 왕년의 인기 댄스 가수들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곡이다. 1990년대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고고장을 모티브로 한 복고풍의 음악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하려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듯한 미끄러지는 안무인 '롤러춤'과 막대사탕을 들고 먹는 듯 흔드는 '캔디춤'은 묘한 중독성을 띤다. 마치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직렬5기통춤'을 앞세워 스타덤에 오른 크레용팝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친근한 옆집 여동생처럼 다가가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다음엔 몰라보게 변해있을 거예요. 섹시한 카리스마도 곧 볼 수 있을 거고요. 변화무쌍한 매력의 국민 걸그룹이 목표예요."

약 3개월간의 데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은 '위문열차'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일과 조영남의 디너쇼 오프닝 무대에 섰던 기억을 꼽으면서 "무엇보다 늘어가는 팬을 보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처음 음악 방송 무대에 섰을 때 저희 팬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팬카페가 생기고, 팬들이 응원송까지 만들어줬어요. 이처럼 한번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 믿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트랜디 프로필

★타미(TAMI·21)
키·몸무게: 162cm·42kg
학력: 금옥여고 졸업
특기: 무술·비트박스
취미: 판소리·헌혈

★루루(RURU·21)
키·몸무게: 162cm·40kg
학력: 조선대 디자인학부 휴학 중
특기: 연기·육상
취미: 요리·메이크업·그림 그리기

★엘리(ELLY·23)
키·몸무게: 162cm·42kg
학력: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졸업
특기: 수영·성대모사
취미: 볼링·네일아트

★나율(NAYUL·21)
키·몸무게: 164cm·42kg
학력: 국제대 아동음악지도과 졸업
특기: 우쿨렐레·연기·노래 암기
취미: 쇼핑·거울 보기

★단비(DANB·21)
키·몸무게: 162cm·41kg
학력: 국제예술대 실용음악과 재학 중
특기: 피아노·서예·암기
취미: 청소·느끼한 음식 먹기

슈주 멤버 스케줄 올스톱

이특 조부모·부친 비보에 조문… 연예인·네티즌들도 애도

슈퍼주니어 이특(사진)의 부친과 조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5일 오후 11시며 현장에는 부친인 박모(57)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씨는 16년째 홀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몇 년 전부터 부모 모두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이었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무역업에 종사했던 박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입원 하루 전날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팝 대표 그룹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밤새 동료와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밤 소식이 알려지자 슈퍼주니어의 멤버들은 물론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비스트의 윤두준 등 절친한 가수들은 빈소가 마련된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이날 밤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취소했고, 또 다른 멤버 려욱은 라디오 시작 직전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소식에 경황이 없다. 여러분께 제가 힘을 드려야 하는데 처져있어서 죄송하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를 다녀온 윤두준은 "항상 웃어주시던 형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니까 가슴이 더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트위터에 위로의 말을 더했다. 2PM의 찬성, FT아일랜드의 이홍기, 레인보우의 노을·지숙 등은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함께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AOA "섹시배틀 한판 붙자"

AOA(사진)가 제목부터 야릇한 신곡을 들고 한겨울 걸그룹 섹시 배틀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16일 섹시한 분위기의 댄스곡 '짧은 치마'를 발표하고 컴백한다. 7일 공식 페이스북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다섯 번째 싱글인 이 곡의 재킷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AOA 멤버들은 올블랙의 터틀넥만 입은 채 아찔한 하의 실종 룩을 선보였다. 이들은 파격적인 하의 실종 패션으로 무결점 몸매와 섹시한 매력을 자랑했다. 지난 2012년 '엘비스'로 데뷔한 AOA는 지난해까지 '겟아웃' '모야' '흔들려'를 잇따라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양성운기자 ysw@

'응답하라 1994'로 순천을 알린 배우 손호준(오른쪽)이 7일 전남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300명 팬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돌 콘서트 현장 같은 손호준 프리허그 행사

tvN '응답하라 1994'의 해태로 주목받은 배우 손호준이 전남 순천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손호준은 7일 순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에서 팬들을 상대로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초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손호준의 '해태 순천 프리허그' 이벤트에는 무려 3000여 명의 팬이 모여들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손호준은 최근 종영한 '응답하라 1994'에서 걸쭉한 전라도 순천 사투리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선사해 큰 인기를 얻었다. 순천시는 손호준이 순천 시민 역을 잘 표현해준 것과 순천시에 직접 방문해 프리허그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명예 홍보대사 위촉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손호준은 이날 프리허그 행사 종료 후 순천에 들른 걸그룹 티아라와 함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또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 들러 티아라 광주 팬사인회에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양성운기자

'아시아 대세남' 이광수

말레이시아서 2000명 팬미팅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는 이광수(사진)가 '아시아 대세남'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광수는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연 팬미팅에서 2000여 아시아 팬들과 만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팬미팅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깜짝 등장한 그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 등 달콤한 세레나데를 선사하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간단한 근황 토크를 시작으로 특유의 유쾌한 입담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팬미팅에 참석한 팬 일부를 무대 위로 초청해 티셔츠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무릎을 꿇은 채 장미꽃을 전달하며 손등 키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행사 말미에는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세심한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2000여 팬들과 이광수가 한마음이 돼 두 시간가량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었다. 자신을 찾아준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이광수가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자리이기에 행사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한채영 광고계 러브콜 쇄도 '제2의 전성기'

배우 한채영(사진)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광고계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7일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KBS2 수목극 '예쁜 남자'로 출산 후 8개월 만에 복귀한 한채영은 최근 의류·액세서리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전자·가전제품 등의 업종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한채영은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와 특유의 고급스러움으로 광고계에서 선호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작품들의 해외 수출로 국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광고계에서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채영은 드라마 종영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 국내와 중화권 국가들을 오가며 작품과 광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김무영 씨제스엔터와 계약

JYJ 김준수의 쌍둥이 형인 김무영(사진)이 동생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일 "신인배우 김무영이 새 식구가 됐다"고 밝히며 "본명인 김준호에서 김무영으로 개명하고 연기자로서 제2막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 데뷔 전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팬클럽을 보유하며 가수 및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는 신인배우로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김무영은 2010년 3월 중국에서 싱글을 발매했다. 이어 2010년 8월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매했으며, 두 번째 싱글 '빌리브'로 오리콘 싱글차트 3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풍부한 감수성으로 JYJ의 '미션'과 김준수의 '타란탈레그라' '땡큐포' '가지마' 등에 작사가로 참여했다. 연기자로서는 2012년 TV조선 '지운수대통'으로 데뷔해 현재 MBC '기황후'에 황제(지창욱)의 호위무사 나무 역으로 출연 중이다. /탁진현기자

"막강 제작진 있음에" 황정민 흥행 부푼 꿈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한혜진과 황정민.

'남자가 사랑할 때', '신세계' 핵심 스태프 참가… '국제시장' 김윤진·오달수와 호흡

황정민이 송강호·설경구·하정우를 잇는 '다작다흥' 배우를 노린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로 2014년을 분주히 시작하는 황정민은 최근 촬영을 마친 '국제시장'(하반기 개봉)으로 멀티 흥행을 노린다.

황정민은 지난해에도 2월과 4월 개봉한 '신세계'와 '전설의 주먹'으로 각각 468만 명과 174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설국열차'(934만 명), '관상'(913만 명)에 이어 '변호인'(802만 명)까지 세 편으로 2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송강호, '베를린'(716만 명), '더 테러 라이브'(557만 명)로 1273만 명을 모은 하정우, '감시자들'(550만 명), '스파이'(343만 명), '소원'(271만 명)으로 1164만 명을 동원한 설경구 등 지난해 유독 멀티 흥행작을 많이 만들어낸 배우들과 비교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황정민이 올해 주연을 맡은 두 편의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였던 '신세계'와 달리 관람 등급에서 제약이 덜하고, 막강한 티켓 파워를 지닌 제작진이 뭉쳤다는 점에서 역대 최고 흥행도 노려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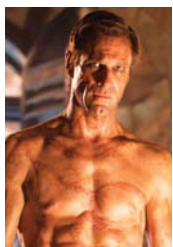
'남자가…'에서 황정민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채업자로 거칠게 살아오다 일생에 한 번뿐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 태일을 연기한다. 마치 '신세계'의 냉혹한 건달 정청과 사랑 앞에 한없이 순수하고 서툰 '너는 내 운명'의 김석중을 섞어 놓은 듯한 인물이다. 황정민은 이 두 편의 영화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자가…'는 '신세계' 조감독 출신인 한동욱 감독의 데뷔작이자 '신세계'의 프로듀서를 비롯해 촬영·조명·미술·분장 등 핵심 스태프가 고스란히 참여한 작품으로, 황정민과 또 한 번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하반기에는 140억원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한국·체코·태국을 오가며 4개월간 촬영한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부산 국제시장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남자 덕수 역을 맡았다. '해운대'로 1132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이 4년 만에 연출한 작품이다.

'국제시장'에는 월드스타 김윤진, '7번방의 선물' '도둑들' '변호인' 등 메가 히트작의 단골 배우 오달수가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엑하트 '프랑켄슈타인'서 영웅 변신

전세계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다크 나이트'의 투페이스로 유명한 에런 엑하트(사진)가 다음 달 국내 개봉될 액션 블록버스터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이하 '프랑켄슈타인')에서 히어로로 변신한다.

이 영화는 인간이 창조해낸 불멸의 존재 프랑켄슈타인이 악에 맞서 인류를 구할 거대한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그린다. '다크 나이트'에서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선보였던 엑하트가 이번엔 악에 맞서 인류를 구할 유일무이한 영웅 프랑켄슈타인으로 그려져 눈길을 끈다.

엑하트는 이번 영화에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등 초능력이나 별도의 특수장치가 들어간 슈트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히어로의 틀을 깬다. 맨몸으로 초인적인 힘과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과격한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기 위해 필리핀 전통무술인 칼리를 연마하며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액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엑하트는 '다크 나이트'를 비롯해 아카데미 수상작인 '에린 브로코비치'와 '블랙 달리아' '럼 다이어리' '사랑의 레시피' '백악관 최후의 날'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탁진현기자

"첫 무대 재밌어 계속 뛰어다녔다"

'사운드 오브 뮤직' 소향 뮤지컬 데뷔 소감… 박기영 "엄마처럼 비춰질까 걱정"

가수 소향과 박기영이 '사운드 오브 뮤직'(사진)의 주인공 마리아 역으로 나란히 뮤지컬에 데뷔한 소감을 털어놨다.

소향은 7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연습 내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무대에 처음 선 순간 관객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7일 열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프레스콜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게오르그 폰 트랍 대령 역의 박완·김형묵·이필모와 마리아 라이너 역의 소향·박기영·최윤정. /손진영기자 son@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번 작품을 선택한 박기영은 "늦게 캐스팅이 돼서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마리아 역에 함께 캐스팅된 소향과 최윤정의 도움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함께 출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녀인 마리아가 엄마처럼 비춰질까봐 걱정이었다"고 연습 과정을 이야기했다.

원작 영화로 유명한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폰 트랍가의 일곱 아이들을 돌보게 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청원수녀 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지난달 6~15일 대구, 19~25일 부산에서 공연을 마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한편 원장수녀 역을 맡은 양희경은 "'넌센스' '신의 아그네스'에 이어 이번까지 원장 수녀 역만 여섯 번째다. 수녀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너스레를 떤 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진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월이 오래된 작품인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고 관람을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배우 숀 펜, 테론과 열애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숀 펜(사진 왼쪽)이 미녀 스타 스칼릿 조핸슨에 이어 15세 연하인 샤를리즈 테론(오른쪽)과도 열애설에 휩싸이며 '50대 능력남'의 면모를 과시했다.

미국 연예 주간지 피플은 6일(현지시간) "펜과 테론이 새해 첫날 하와이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뒤 지난 토요일 데이트를 즐겼다"며 같이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테론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펜이 차 안에서 테론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는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매우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다"고 두 사람의 분위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테론의 집으로 향했으며, 다음날 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 대변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지난해 10월 핼러윈 파티를 계기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펜은 마돈나·로빈 라이트와 이혼 후 스무 살 이상 연하인 페트라 넴코바·스칼릿 조핸슨과 연이어 염문을 뿌렸다. 조핸슨과는 2011년 교제 5개월 만에 헤어졌다.

/탁진현기자

국산 애니 '넛잡' 싸이 말춤 특별영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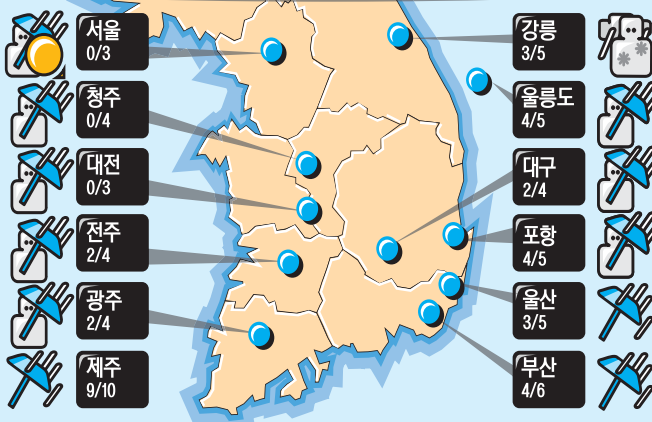
29일 개봉될 국산 블록버스터 3D 애니메이션 '넛잡: 땅콩 도둑들'이 극중 삽입된 싸이의 말춤 특별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싸이의 3D 캐릭터가 극중 캐릭터들과 함께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춰 웃음을 자아냈다. 싸이도 실제로 등장해 우렁찬 목소리로 "더 넛잡"과 "넛잡 파이팅!"이라는 응원 멘트를 전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 투입,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에서 3000여 개 관 대규모 개봉 확정, 전 세계 120여 개국 선판매, 싸이의 참여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사고뭉치 다람쥐 설리와 친구들의 기상천외한 땅콩털이 대작전을 담았다.

이 밖에 영상에서는 설리가 도로 위에서 겪는 수난, 땅콩원정대가 급류에 휩쓸리며 겪는 긴박한 상황 등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들도 공개됐다.

/탁진현기자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2시 최고! 특가 1만원 (평일 2시 공연 관람시/1월 공연)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
2013년 7월 3일 ~ 2014년 3월 2일
코엑스아트홀
화·목 2시 / 수·금 11시, 2시 / 토·일·공휴일 11시, 1시 / 월 공연없음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공연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단체문의 | (주)티움교육 1588-4909
| 주최 · 제작 | ㈜네오 ㈜나인스토리 극단 예인

겨울에는 아토피, 건조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목욕 횟수와 비누 사용을 줄이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3	7			2
		3	8		9	4		
	4	5	7		6	3	9	
	3						8	
	9	6	3		5	2	7	
		7	1		8	6		
4			2	6	3			7

3				6				2
	8			5				
	2		1		3		7	
4		2	6					
		6	4		8	1		
					9	3		4
	6		8		5		3	
				9			8	
7				4				9

스도쿠 정답

9	1	4	6	5	2	7	3	8
6	5	8	4	3	7	9	1	2
2	7	3	8	1	9	4	6	5
8	4	5	7	2	6	3	9	1
7	3	2	9	4	1	5	8	6
1	9	6	3	8	5	2	7	4
5	2	7	1	9	8	6	4	3
4	8	9	2	6	3	1	5	7
3	6	1	5	7	4	8	2	9

3	9	5	7	6	4	8	1	2
1	8	7	9	5	2	6	4	3
6	2	4	1	8	3	9	7	5
4	3	2	6	1	7	5	9	8
9	5	6	4	3	8	1	2	7
8	7	1	5	2	9	3	6	4
2	6	9	8	7	5	4	3	1
5	4	3	2	9	1	7	8	6
7	1	8	3	4	6	2	5	9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종교 다른 남친과의 교제 부모님이 반대 주변 사람들까지 설득할 논리 만들어야

Q Hey 캣우먼!
저는 졸업반 여대생입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합쳤죠. 저는 불교고 오빠는 기독교인데 부모님은 둘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걸 알고 바로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교회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헤어질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엄마·아빠께 비밀로 하고 만났어요. 근데 얼마 전 들통이 나서 엄마·아빠가 화가 나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오빠가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고 저도 아직 많이 좋아하는데 종교 차이가 있으면 헤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나요? /핫초코

A Hey 핫초코!
종교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은 남자와 여자라는 근본적인 차이 외에도 다양한 차이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 차이, 나이 차이, 집안 차이, 학벌 차이,취향 차이, 성격 차이, 하물며 청결도 차이 등 갈등의 소지는 많습니다. 저는 '공감력' 정도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해주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아요. 나와 달라도 상대 입장을 최대한 공감하는 능력, 배려와 존중, 때에 따라서는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나를 내주는 희생도 필요하죠. 서로를 사랑하니까 공감하는 양 보이지만 열정이 식은 후 상대의 다름을 못 참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다름을 포용하고 나와 조율해 공존할 방법을 찾아내는 인격적 성숙함과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균형이 깨져 한쪽이 피해의식을 느끼기 쉽죠. 다만 종교 차이가 귀찮은 이유는 '집안 차이'나 '학벌 차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쉽게 들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교 차이로 왜 안 헤어져도 되는지 그 세세한 논리를 만들어 일단 스스로 설득하고 그다음 주변에 증명해야 하죠. 그 번거로움을 굳이 할 수 있겠습니까?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종교인으로 살 생각 전혀 없어 막연히 자유인 꿈 꿨다간 낭패

미남2 남자 67년 6월 28일 음력 오후 8시

Q 종교인 집안으로 대기업을 다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2012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 종교는 관심 없고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늘 공허하고 현실을 떠나고 싶은데 사주팔자가 어떤가요?

A 연살(年煞)을 지니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아 유시무종에 오래가지 못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사리에 어두운데도 기분과 감정만으로 겁 없이 덤비는 천방지축과 같아 욕패(浴敗)합니다. 사주에서 이 살은 자오묘유(子午卯酉)의 파(破)가 되는 글자 조합으로 풍기문란과 연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풍류를 즐기고 애정이 풍부하며 용모가 준수한데 귀하께서 지금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이상향을 꿈꾸기보다는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면 주변을 파악하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남자친구 따라 외국 가도 될지 호주·일본 같은 남쪽나라 추천

ALSKAXN 여자 83년 10월 8일 음력 오후 5시

Q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도 될까요?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는 상사 주재원입니다.

A 아름다운 나무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려는 비현실적 순수함이 강하지만 훌륭한 사주입니다. 갑목(甲木) 생일간이 연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사주팔자에 신자진수국(申子辰水局:수로 무리를 이룸)으로 흐르는 강한 수기(水氣)를 막을 수 없어 반대해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주 내(內)에 화기(火氣)가 부족하며 운이 역마성이니 외국으로 나갈 수 있으며 외국인과 인연이 확실합니다. 시주(時柱)가 관(官)과 인수(印綬)가 합을 이루고 있어 외국어에 능통하고 호주나 일본 같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현재 운과 합을 이루는 2014년이나 2017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8일 (음 12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0년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72년생** 일에 빠지면 고민은 저절로 사라진다. **84년생** 배우자 될 인연 만날 수 있으니 기대.

49년생 배움의 길에 친구 있어 든든. **61년생** 고목에 새싹이 돋는 격. **73년생** 목돈 쓸 일 생길 수 있으니 대비하라. **85년생** 땀을 흘린 만큼 지갑은 배가 부르다.

50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 성사된다. **62년생**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74년생** 한계를 인정하면 새 길 열린다. **86년생** 친구와 금전으로 인한 말썽 조심.

51년생 돈 보따리 일찍 풀면 손해. **63년생**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75년생** 우유부단한 처신이 이로운 날이다. **87년생** 선행이 알려져 칭송이 쏟아진다.

52년생 수탉이 기를 펴야 흥한다. **64년생** 뜻 이루려면 부정적인 생각 버려라. **76년생** 임시방편이 전화위복돼 기쁨 안긴다. **88년생** 상사의 과분한 사랑에 황송.

53년생 대의를 위해 소신 굽혀라. **65년생** 운기 형통해 거침이 없다. **77년생** 복록은 뿌린 대로 거둔 것임을 명심하라. **89년생** 생각을 바꾸면 없던 길도 생긴다.

42년생 코끝이 찡하게 반가운 벗을 만난다. **54년생** 돈 문제는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66년생** 운기가 좋아 횡재도 있다. **78년생** 아랫사람에게 신세지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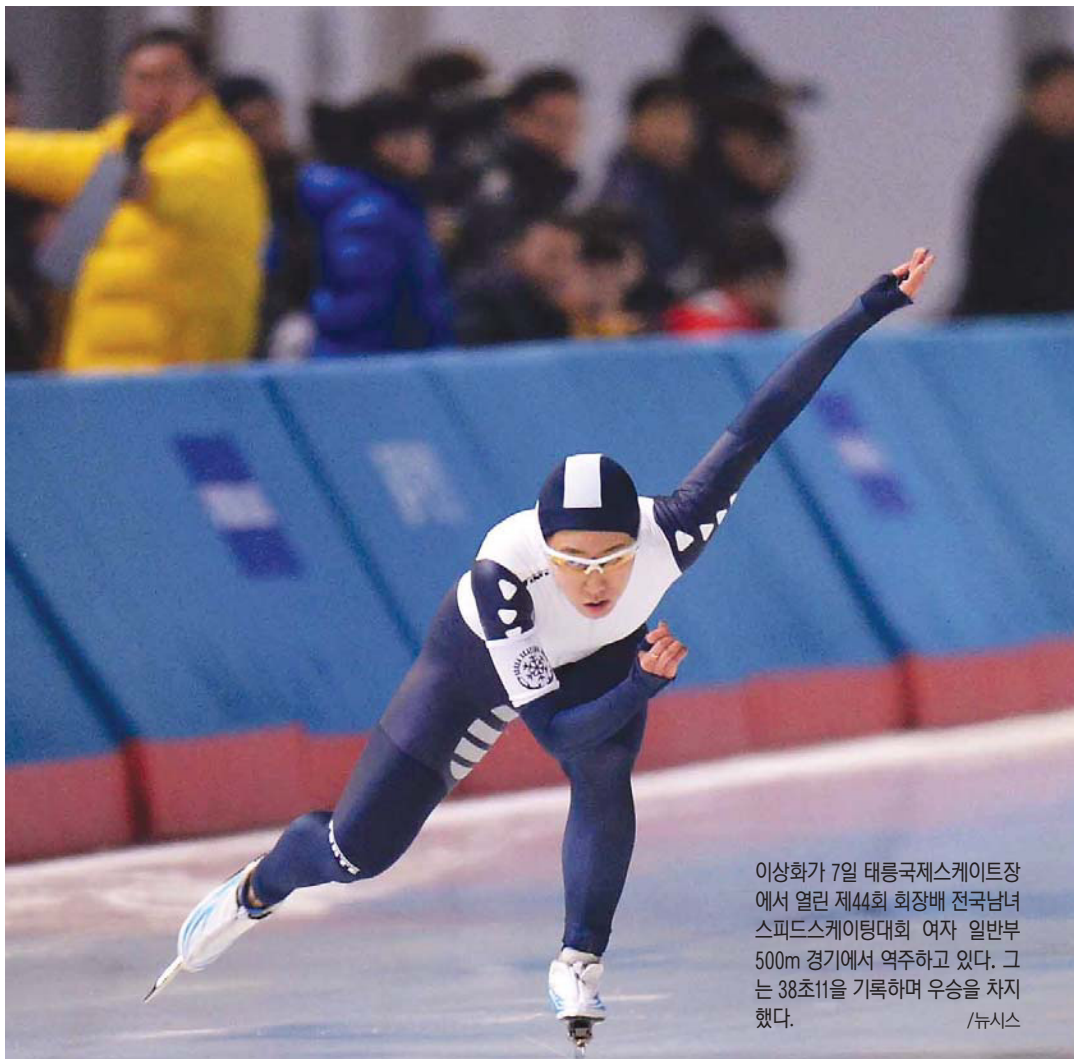
43년생 아랫사람 허물엔 침묵할 것. **55년생** 아침엔 고전하나 오후에는 좋다. **67년생** 꿈이 뒤숭숭할 땐 매사 조심할 것. **79년생** 배고픈 사자가 사냥에 나선 격.

44년생 생각지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56년생** 남의 제사엔 팔짱 끼고 있어라. **68년생** 예상치 못한 수확 얻게 된다. **80년생** 이성 간 접촉에 소득이 많은 날이다.

45년생 궁해도 비겁하게 행동하지 마라. **57년생**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 **69년생** 얻는 것보다 지키는 데 신경 써라. **81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부귀는 그림의 떡.

46년생 걱정한 일이 결국 해결된다. **5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70년생** 성공과 긍정적인 생각은 연인 사이. **82년생** 잘나갈수록 분수 지켜라.

47년생 운명 앞에 자신을 낮춰야 행복. **59년생** 명예는 잃지만 실속은 얻는다. **71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은 피하는 게 상책. **8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

‘수성’ 이상화 ‘돌풍’ 윤성빈…金 부탁해

이상화가 7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4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500m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그는 38초11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이, 소치 마지막 리허설 우승…2연패 달성 기대
윤, 스켈레톤 대륙간컵 사상 첫 1위…활약 주목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에 이어 한국 스켈레톤의 ‘겁 없는 신예’ 윤성빈(20·한국체대·**사진**)이 겨울 스포츠의 보배로 떠올랐다.

윤성빈은 7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인터컨티넨털컵 6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45초73의 기록으로 안톤 바투예프(러시아·1분46초27)를 0.54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인터컨티넨털컵 출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다.

지난해 여름 스켈레톤에 입문해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3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발탁된 윤성빈은 2년차의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한국 스켈레톤 역사상 최초의 인터컨티넨털컵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인터컨티넨털컵은 월드컵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한국 선수들이 자주 출전하는 아메리카컵보다 수준이 높다.

윤성빈은 지난해 11월 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고, 12월 인터컨티넨털컵에서도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켈레톤 입문 2년 만에 인터컨티넨털컵 금메달까지 목에 건 윤성빈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존 몽고메리(캐나다)도 윤성빈보다 0.84초 뒤진 5위에 그쳤다.

한편 이상화는 7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4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500m에서 38초11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경기는 이상화가 지난해 11~12월 월드컵 1~4차 대회를 마친 뒤 출전한 첫 대회이자 소치 올림픽에 앞서 치른 마지막 실전 레이스다. 그는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세 차례나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이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입지를 굳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모비스, KGC인삼공사 꺾고 3연승 달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안양 KGC인삼공사를 물리치며 3연승을 달렸다.

모비스는 7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69-66으로 승리했다.

모비스는 이날 승리로 23승9패를 기록하며 1위 서울 SK(22승8패)와의 승차를 0으로 만들었지만 승률에서 뒤지며 2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양팀은 경기 내내 팽팽하게 맞섰지만 양동근이 해결사로 나서며 모비스가 승기를 잡았다.

3쿼터까지 4점에 그친 양동근은 4쿼터 막판 KGC인삼공사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3점슛과 자유투 3개를 성공시키며 모비스의 승리를 이끌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프로농구 전적 7일

KGC	21	12	16	17	66
모비스	22	13	17	17	69

프로배구 전적 7일

대한항공	3	1	러시앤캐시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오른쪽)이 KGC인삼공사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17라운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후반 48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에우제비우에 이 골을 바칩니다”

호날두 멀티골 시즌 20호…스페인리그 득점선두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사망한 에우제비우 다 실바 페헤이라에게 골로 애도를 표했다.

호날두는 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셀타비고와의 2013~2014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카림 벤제마의 골로 1-0으로 앞선 후반 37분과 후반 추가시간에 내리 2골을 넣어 레알 마드리드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호날두는 “에우제비우를 위한 골이다”며 “그는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신화적인 인물이다.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5일 사망한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이자 대선배인 에우제비우에게 골을 바친 것이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에우제비우를 추모한 호날두는 “(에우제비우를 향해) 경의를 표하는 스페인 전역의 분위기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한편 호날두는 이날 2골을 더하면서 시즌 20호 6골로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양성운기자

봉중근 4억5000만원 계약 현역 마무리투수 최고 대우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봉중근이 국내 현역 마무리 투수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LG는 봉중근이 지난해 1억5000만원보다 200% 상승한 4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구원왕을 차지한 손승락(넥센 히어로즈)이 받는 4억30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현역 마무리 투수 중 최고 대우다. 봉중근은 지난해 55경기에 나서 8승1패, 38세이브를 올리고 평균자책점은 1.33을 기록했다. /양성운기자

한신 오승환 가장 먼저 스프링캠프 입소

‘한신 타이거즈 수호신’ 오승환(32·**사진**)이 가장 먼저 팀 스프링 캠프지인 오키나와로 이동해 몸을 만든다. 새로운 팀과 새로운 무대에서의 적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7일 오승환이 다른 선수들보다 빠른 오는 24일 오키나와에 입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신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선발대를 26일 캠프지 오키나와로 들여보낼 계획이다.

한신 구단 관계자는 오승환이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캠프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구장의 시설과 환경 등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괌에서 자율훈련 중인 오승환은 오키나와 이동 다음날인 25일부터 한신이 사용할 기노자구장을 독점,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신은 전지훈련을 마친 뒤 다음달 22일부터 시범경기에 들어간다. 이후 3월 28일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2014년도 정규시즌을 맞이한다. /양성운기자